이달의 우리회사 추천제품

경 농 만추 입제 - 수도용 육묘상처리제

아닐라이드계의 티아디닐과 클로로니코티닐계의 이미다클로프리드의 혼합제로 수도 주요 병해충을 본답처리가 아닌, 간편한 육묘상 처리로 방제가 가능한 수도용 살균·살충제이다. 병원균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작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저항성을 유도, 증가시키는 독특한 작용기작으로 병해를 방제한다. 또한 강력한 침투이행성으로 약효가 빠르고 고르게 퍼지며, 긴 약효지속기간으로 도열병을 80일 이상 억제한다. 특히 안전하고 안정된 방제효과로 모의 이식 깊이나 담수 깊이, 광 등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어 농가 약제사용에 불편함을 줄였다. 육묘상처리만으로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물바구미는 물론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후기 병해 - 흰잎마름병 등 수도 주요 병해충을 육묘상 1회 처리로 동시 방제할 수 있는 생력화 제품이다.

동방아그로 듀엣 입제-벼 육묘상자처리제 · 스파크 액제-경엽처리용 제초제

듀엣입제는 벼 육묘상자처리 전문약제로 벼물바구미를 비롯한 줄무늬잎마름병의 매개충인 애멸구 등 각종 해충과 잎·목도열병, 흰잎마름병, 세균성잎마름병 등 각종 병해를 단 한번의 처리로 동시방제 가능한 효율적인 수도용 살균·살충제이다.

스파크 액제는 환경 및 작물에 높은 안정성을 지닌 광범위 제초제이다. 약효지속기간이 길어 과수원의 경우 년 2회 처리만으로 잡초방제가 가능하며, 흡수가 빠르고 안전해 약을 뿌리고 6시간 이내에 큰 비만 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약제에만 들어있는 황산암모늄의 작용기로 인하여 잎표면(왁스층)을 녹여 잎과 줄기에 신속히 흡수되어 약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이미 잡초는 생리적 고사상태가 된다. 잡초생육기 경엽처리용 제초제이므로 잡초가 30~40cm 정도일때 살포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동부하이텍 세티스 입상수화제 - 진딧물방제 전문약제

새로운 계통의 살충제로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진딧물에 탁월한 살충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내우성 및 침달성, 침투이행성이 뛰어나 한번 살포시 약효가 30

이달의 우리회사 추천제품

일이상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약제이며 천적 및 유용생물에 대한 영향이 없어 개화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약제이다. 진딧물은 기주식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내놓는 배설물에는 당분이 섞여 있어 오이, 딸기, 수박 등에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가치를 저해시키는 대표적인 해충이다. 오이, 딸기의 경우 진딧물 다발생기에 수확 2일전까지 3회이내로 살포하고 수박의 경우 진딧물 다발생기에 수확 7일전까지 3회이내로 살포하면 다수확 고품질의 오이, 딸기, 수박 생산이 가능하다. 그외 사과, 배, 복숭아, 고추, 배추, 감자, 국화에도 약해 걱정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코니도 입제 - 진딧물방제 전문약제

강력한 침투이행성으로 진딧물에 탁월한 살충 효과를 가진 살충제이다. 긴 약효지속기간, 신속한 살충효과, 폭넓은 적용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작물, 사용자 안전성이 뛰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원제로 수출 작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작물이 잘 견디는 능력을 높여주는 '스트레스 실드' 효과까지 있어 단순히 진딧물만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을 더욱 튼튼하게 재배할 수 있고 수확량을 증대시켜주는 효과까지 있다.

신젠타 티치다운 아이큐 - 비선택성 제초제

새롭게 개발된 이행형 비선택성 제초제로 고농도의 원제가 함유되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잡초 체내로 이행하여 뿌리까지 고사시킨다. 약제의 체내흡수가 빠르며, 내우성이 강하다. 쇠뜨기, 망초, 닭의장풀, 명아주 등 난방제 잡초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지속기간이 오래간다. 사과 및 감귤 등 넓은 면적의 과수원에 적합한 제형이며, 비농경지, 초지조성지, 운동장 등 광범위한 대상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으며, 환경에 높은 안전성을 나타낸다.

이달의 우리회사 추천제품

성보화학 다난번 입제 - 살균·살충 육묘상처리제

벼에 발생하는 도열병 및 벼물바구미, 벼잎벌레 및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줄무늬잎마름병의 매개충인 애멸구까지 육묘상처리 한번으로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육묘상처리제이다. 침투이행성이 뛰어나 벼 전체에 약성분이 골고루 분포되며 약효지속기간이 길어 벼물바구미와 벼잎벌레의 성충 뿐만 아니라 유충에도 효과가 있다. 한번의 처리로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하므로 기존의 방제횟수 및 살포량을 절감시킬 수 있다.

아리스타 균대왕 입상수화제 - 역병·노균병 전문약제

예방효과와 치료효과를 겸비하여 급성 노균병 방제에 효과적이다. Multi-sites와 single-site약제의 혼합으로 병원균의 저항성을 극복하며 역병·노균병 전문약제로 병반확산을 신속히 억제하며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적용작물은 고추(단고추류포함) 역병, 오이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면 된다.

영일케미컬 오복 유제 - 수도 이앙전처리제

수도 이앙전처리제로 두 가지의 유효성분이 어울어 진 제초제이다. 기존의 약제에 비해 피, 물달개비 등에 대한 방제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등 적용잡초의 폭이 넓으며 환경에도 안전한 제초제이다. 사용시기는 써레질 직후부터 모내기 2일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맑은물 처리, 흙탕물 처리 둘다 가능하다. 400㎖ 1병으로 1,000㎡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삼공 다카바 입제 - 벼 육묘상자처리제

벼 육묘상자에 한번 살포로 도열병 방제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는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과 벼물바구미, 벼잎물가파리, 벼잎벌레 등 저온성 해충과 줄무늬잎마름병을 매개하는 애멸구까지 동시에 방제할 수 있다. 이앙 7일전부터 육묘상에 약제를 처리하므로 사용이 간편하고, 적은약량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본답 약제 살포를 1~2회 줄여줌으로써 노동력 및 비용과 환경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특히 저농약재배에 사용가능해 우렁이나 미꾸리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 우렁이농법과 미꾸리농법에 매우 적합한 약제이다.